

(주)키토랑

특급도계장 신축으로 완전한 육계 계열업체로 재도약



“신선하고 위생적인 키토랑 닭고기 생산으로 영남지역의 영업라인을 확실히 구축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키토랑 임직원 및 사육농가 대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축 사육 준공 기념식에서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각오를 밝히는 (주)키토랑의 조영래 대표이사. 조영래 대표이사는 이번 사육 신축으로 앞으로 키토랑이 작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나아가 국내 계육산업이 가일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주)키토랑은 지난 1997년 1월 16일 자본금 3억원에 건우식품 주식회사로 출범했으며, 2001년 7월 2일 주식회사 키토랑으로 상호를 변경·등록하여 기존 임도계 위주의 도계장에서 탈피, 명실공히 계약생산 - 도계 - 유통이 일원화되는 육계 계열화업체로 태동했다.

현재 관리직 32명, 생산직 57명 등 총 89명이 한솥밥을 먹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대구지역에 키토랑 바람을 불려일으키기 위해 오늘도 구슬

땀을 흘리고 있다.

일일 도계능력 8만수 규모의 생산시설로 탈바꿈

(주)키토랑이 지난 1997년 1월 창사이래 매년 40~50% 이상의 매출신장과 이에 따른 경상이익을 올려 명실공히 대구·경북지역의 중견 기업 위치에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모두 직원들의 노고와 관련업체의 아낌없는 성원 덕택이라고 조영래 사장은 말한다.

키토랑은 이번 사육 신축으로 인해 과거 임도계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 완전한 육계계열화 업체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윤태희 상무이사는 신축 사육 경과보고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9조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도축규모에 따라 2002년 7월 1일까지 HACCP의 적용대상업체로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자료확보 및 제반업무를 준비해 왔으며, 지난 3월 2일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6월 26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그 이후 지상 1층 503평, 2층 367평 등 총 건평 870평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공사시공후 투자액은 약 20억원이 소요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시설투자 외에도 HACCP 인증을 비롯하여 ISO 9001 및 KS마크 인증을 받기 위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HACCP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이는 금년안에 모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아울러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충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새로 건립된 도계장의 경우 도계능력은 시간당 최대 8,500수로써 종전보다 시간당 약 3,000수 이상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1일 평균 10시간 작업으로 8만수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또한 원활한 제품공급을 위해 가공공장을 확장했으며, 지속적으로 체인사업부분을 강화 운영할 계획이다.

최상의 품질, 최대 고객서비스 창출

키토랑은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보다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생산을 위하여 고객 최우선주의를 지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힌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인 코덱스(CODEX)에서 권장하는 HACCP 및 ISO 9001, KS마크 등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종계장-부화장-사육농가-도계장-가공공장-유통체인을 하나로 잇는 수직계열화 사업을 위해 종계장 및 부화장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올해 하반기내로 공



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영래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신축 사옥 준공기념식을 기점으로 우리 키토랑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키토랑 닭고기는 대구 경남·북 지역의 영업라인을 확실히 구축하고 나아가서 전국적인 브랜드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키토랑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신속하게 지역내에 공급하게 됨으로써 최상의 품질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키토랑은 이러한 사업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로 오는 2005년도에는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대를 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식회사 키토랑의 발전은 지역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지역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닭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계육산업이 가일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키토랑이 자체 브랜드의 전국화로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조영래 대표이사의 말대로 실현되길 기대해본다.◆